

예술가와 친구들

# 이어령도 반했다, 무의식서 길어올린 한만영의 세계

황인  
미술평론가



한만영의 이마는 바다처럼 넓다. 망망한 수면에 가끔 잔잔한 파도가 일 때도 있지만 그 바다는 대체로 과묵하다. 과묵하고 깊은 바다에서 사유의 느린 숨결을 따라 술한 이미지가 공기방울처럼 수면 위로 떠오른다. 일상에서는 보이지 않던 무의식의 깊숙한 흐름을 신고서 나타난 이미지들이다. 한만영은 이런 이미지를 즐겨 그리는 초현실주의 화가다. 한만영은 1946년, 지금은 서울시로 편입된 경기도 부천군 오류동에서 태어났다. 돌을 지날 무렵 어머니를 여의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 품에서 자랐다. 6·25 전쟁이 터졌다. 1·4 후퇴 때 대구 근교로 피란 갔다가 오류동으로 돌아왔다. 1953년 휴전이 되던 그 해 오류초등학교에 입학했다.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지만 전쟁 직후라 크레용, 종이 등 미술 재료는 너무나 빈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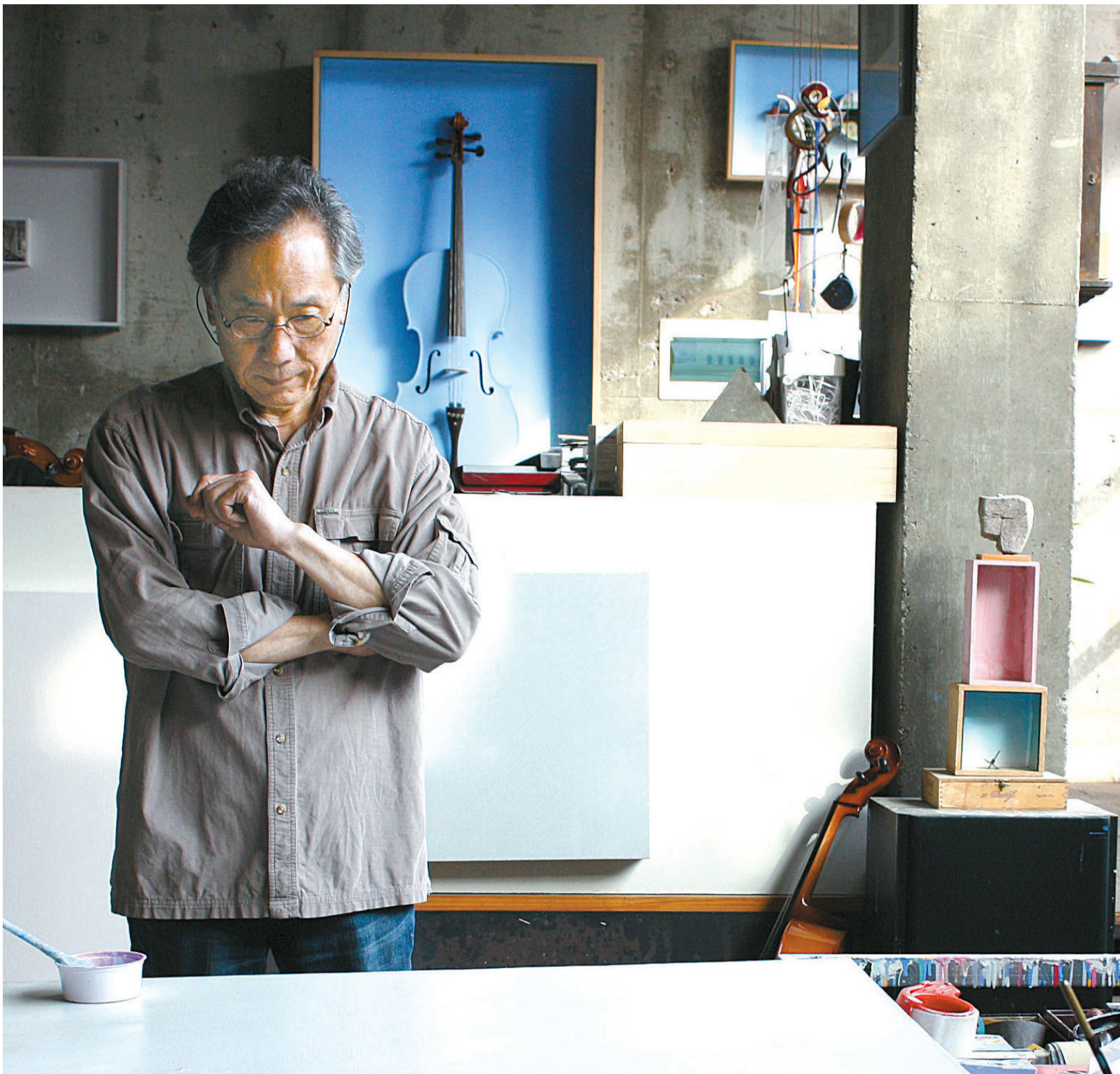
몽환적인 스토리텔링, 작품에 숨어있어 초등학교를 졸업하자 부친과 합류하기 위해 서울 남산 자락의 해방촌으로 왔다. 부친은 국군 군악대 출신이었다 색소폰을 맡았다. 한만영이 해방촌으로 왔을 때 부친은 집에서 가까운 미8군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한만영 역시 집에서 가까운 보광동의 오산중고등학교를 다녔다. 중학교 2학년 때 미술 시간이었다. 자신의 한쪽 손을 그려내는 수업이 있었다. 그림의 재능을 알아차린 미술교사 김창복(1918~2010)이 한만영을 미술반으로 이끌었다. 6·25 전쟁 전의 오산학교는 평안북도 정주에 있었다. 김창복은 화가 이중섭의 오산학교 2년 후배로 함께 정주 시절을 보냈다. 두 사람은 무척 친했던 지 김창복은 이중섭의 은지화를 많이 갖고 있었다. 이중섭의 거센 기운이 보광동의 오산중고등학교 미술반까지 흐르고 있었다. 김창복의 제자로 오산고교를 나와 당시 홍익대에 재학중이던 화가 이승조(1941~1990)가 수시로 미술반의 후배들을 찾아와 지도했다.

한만영은 중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유희를 그렸다. 일제 출세인 유희 물감은 비싸서 엄두를 못 내고 몇 달 동안 용돈을 모아 마티스 물감을 샀다. 마티스 물감도 귀해서 아껴 썼다. 미술반의 동급생들도 다 유희를 그렸다. 흰색 물감으로는 화공약품에서 파는 아연화(산화아연)로 대신했다. 미군 군용 천막의 천을 잘라서 캔버스로 썼다.

미술반 생활은 즐거웠다. 해방촌에서 한강변의 오산중고등학교 가는 남산비탈의 길에는 봄이면 개복숭아 꽃이 아담스러웠다. 한강변은 목가적이었다. 서핑고, 한남동에 나루터가 있었다. 고교생 때에는 야외 스케치를 하기 위해 한남동 나루터에서 배를 타고 압구정으로 넘어가곤 했다. 압구정은 온통 배밭이었다. 식육 중만의 고교생들은 그림은 뒷전이고 배 서리에 열중했다. 너무 많이 먹어대는 바람에 설사가 와서 고생을 했다. 남의 것을 훔쳐 먹은 죄의 쓰라린 벌이었다.

홍익대 서양화과는 3학년과 4학년이 합반으로 교수 실기실 제로 운영되었다. 3학년 때에는 유영국 교수의 실기실에서 수업을 받았다. 문래동에 있는 군수사령부에서 3년 복무를 마친 후 복학하니 4학년이 되었다. 남관 교수의 실기실에서 수업을 받았다. 졸업동기로는 이승일, 한기주, 김태호, 차대덕 등이 있었다.

1972년 대학을 졸업했다. 생계가 막막했다. 일반 회사에 취직을 하여 샐러리맨 생활을 잠시 했다. 원하던 삶이 아니었다. 마음을 고쳐 먹어 1973년 서울역 앞 후암동 오르막길에 화실을 구입했다. 4층 건물의 2층이었는데 1층이 장의사라서 사람들의 발길이 뜸했다. 취미생과 약간의 입시생을 받고 자



한만영 작가가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작업실에서 음악을 들으며 상념에 잠겨있다. 작가는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작업한다.

[사진 한만영]

### 문학가들이 사랑한 초현실주의 화가

### 중학교 교사 김창복이 재능 알아봐 홍대 진학해 유영국·남관 수업받아

### 70년대 극사실 작품으로 본격 활동 당시 단색화 위주 미술계선 외면

### 화단 금기깨고 작품에 명화 차용 '문학사상' 표지 장식하며 유명세

신의 작업실로도 활용했다. 1974년 썸이던가. 어느 날 작업실에 초등학교 여교사가 찾아 왔다. 대전여고와 서울교대를 나온 초등학교 교사 서장원이 취미로 그림을 배우러 왔던 것. 그림으로 인연이 맺어진 두 사람은 1977년 결혼을 했다. 부인 서장원은 한만영에게 큰 힘이 되어주었다. 작가생활은 늘 불안하다. 서장원의 알뜰함과 헌신이 없었더라면 한만영의 작가생활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한만영은 서장원에 대해 늘 고마워한다.

한만영이 본격적인 작가활동을 시작한 건 1970년대 중반이다. 오늘날 단색화로 불리우는 '물성' 위주의 추상화가 어느덧 한국 현대미술의 대세를 이루고 있었다. 한만영같은 '형상' 계열의 작가들은 설 자리가 없었다. 극사실 작품들은 간판쟁이 그림으로 비난 받기도 했다.

1995년부터 성신여대서 후학 양성  
"내가 '그거'라고 한 것은 한만영의 작품 '병'"



한만영의 '병'(1976). 캔버스에 유채, 개인 소장.



왼쪽부터 소설가 김승옥, 문학평론가 이어령, 미술가 한만영이 1979년 한만영의 한국회랑 개인전에 모인 모습. [사진 한만영]

말한다. 조니워커 병이 실제 그대로 캔버스에 옮겨져 있는데 그러나 그 병 속에 들어 있는 것은 술이 아니었다. 놀랍게도 한만영은 거기에 환구름과 파도가 밀려드는 바다를 잡아넣어 놓았던 것이다." (그대의 환상은 바다보다 상상하다, 정채봉, 가나아트 1992년 7, 8월호)

한만영은 1976년 극사실 기법으로 초현실주의 작품 '병'을 제작했다. 국내 미술계에서 초현실주의는 낯설다. 초현실주의는 개인의 탄생과 개인의 철저한 고립에서 나온다. 고립이 이끄는 의식의 내면화가 무의식의 깊은 흐름을 포착해낸다. 공동체에 서 개인이 분리되지 않는 사회에서는 초현실주의가 나오기 힘들다. 어려서부터 '개인'에 익숙했던 한만영에게는 초현실주의가 멀리 느껴지지 않았다.

1977년부터는 이미 잘 알려진 '명화'들을 차용한 작품을 그렸다. 지금은 '차용'이 현대미술의 방법론의 하나로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당시 국내 미술계에서는 오해가 많았다. 차용이란 방법론은 화단의 금기에 도전하는 일이었다. 저항에 부딪힌 한만영은 정신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힘들었다.

1977년 이두식, 차대덕과 함께 3인전을 열었다. 다 형상 계열의 작가들이었다. 이때 소설가 김승옥(1941~)이 찾아왔다. 그림에도 재능이 뛰어났던 김승옥은 한만영의 초현실주의적인 그림에 매료되었다. 충무로의 관화가 이항성의 건물 1층에 한국회랑이 있었다. 이항성은 한만영의 흥대 졸업동기인 이승일의 부친이었다. 1979년 한만영은 한국회랑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김승옥이 문학평론가 이어령(1934~2022)을 대동하고 전시장에 나타났다. 대중들의 시선에는 낯설게만 느껴졌던 초현실주의 작품 일색인 한만영의 개인전은 충격적이었다. 그해 이어령이 주간으로 있던 문학사상 8월호에 한만영의 표지화가 실렸다. 극작가 유치진의 얼굴을 사실적으로 그리고 배경은 초현실주의 분위기로 처리했다. 이후 문학잡지에 표지화와 컷 요청이 이어졌다.

한만영의 작품에는 몽환적인 스토리텔링이 숨어있기 마련인데 문학가들이 이를 좋아했다. 이어령, 김승옥, 아동문학가 정채봉(1946~2001) 등이 특히 그랬다. 김승옥은 15평짜리 안암동 대광아파트 한만영의 집에 친구들을 데리고 찾아와서 밤새워 술을 마셨다. 통금이 있던 때라 일단 들어오고 나면 새벽까지는 달리 어디로 갈 수도 없었다.

김승옥은 후배 정채봉을 데려와서 한만영에게 소개했는데 이 두 사람은 동갑내기라 금방 친해졌다. 김승옥과는 파고다공원 뒤 '탑골' 술집에서도 자주 만났는데 만년에는 그의 건강이 좋지 않아져 만남이 끊어졌다.

일찍부터 한만영의 초현실주의 그림을 좋아한 갤러리스트로는 명동화랑의 김문호(1930~1982)가 있었다. 김문호는 수시로 한만영을 한남동 '가을'로 불러내었다. 가서 보면 미술평론가 오광수와 한국화가 송수남이 함께 기다리고 있었다. 미술계에 한만영의 초현실주의 그림이 점점 익숙해졌다. 1984년에 동산방화랑에서, 1987년에는 현대화랑에서 개인전이 열렸다.

1995년, 늦은 나이에 성신여대 교수가 되어 후학을 가르쳤다. 한만영은 재즈 음악을 했던 부친과는 달리 클래식음악을 즐겨 듣는데 특히 말러를 좋아한다. 평창동 작업실에서는 클래식 방송에 다이얼을 고정시킨 라디오를 틀어놓고 작업을 한다. 의식을 무의식의 심해로 밀어넣었다가 다시 길어내는 작업은 버릇처럼 하루도 멈출 수가 없다.

<광주일보와 중앙 SUNDAY 제휴 기사입니다>

황인 미술평론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전시기획과 공학하고 미술을 융합하는 학제 간 연구를 병행하고 있다. 1980년대 후반 현대화랑에서 일하면서 지금은 거의 작고한 대표적 화가들을 많이 만났다.

##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KSA 한국표준협회

ISO 21388

보청기적합관리 인증센터



# 국제보청기

-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